

# 여기, 지구별 여행사

'나'로서 살아간다는 것

The meaning of living as me

드림워커 공동저자 10인 지음



무엇이 나를 여기에 있게 했을까?

인세 전액 기부  
프로젝트 도서

사회적  
리더들이 말하는  
소박한 삶의 의미

MZ세대들을 위한  
인생 이야기

지은이  
드림워커 동동저자 10인

**홍배현**  
**배건**  
**운영애**  
**오미정**  
**김규민**  
**윤지민**  
**천혜영**  
**차수경**  
**임가흔**  
**박영희**

이 책의 인세 전액은 저자  
10인의 희망에 의거하여  
문화적 약자(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약자, 실버세대)와  
인륜적 사회 운동가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책의 인세 전액은  
저자 10인의 희망에 의거하여  
문화적 약자(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약자, 실버세대)와  
인륜적 사회 운동가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 들어가며

이 책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책은 코로나로 사회가 본격적으로 어지러워지기 전 출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취합과 제작에 1년이나 1년 6개월이면 충분할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헛수로 3년이나 걸렸습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기획했던 사람으로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자가 10명이다 보니, 초기에는 원고 취합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 2개월에 걸쳐 원고는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덜 커 다가왔고, 그때부터 출판사는 한껏 몸을 움크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독자들은 잘 모르지만, 이 무렵 국내의 출판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누군가는 코로나로 집에서 책 볼 시간이 많으니 출판사는 돈을 벌 것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부 출판사들의 영업 이익은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내에는 6만 5천개가 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중 출판계 전체를 끌어간다는 78개의 출판 기업이 있습니다. 이 상위 출판사의 동향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전체 출판 시장의 불황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78개 출판기업의 2020년도 총매출액이 약 2,062억 원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기업 53.8% 기업의 매출이 감소

했습니다. (2020년 대한출판문화협회)

사회적 가치 창출'에 모토를 두고 있던 조그만 출판법인인 '드림워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부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책이다 보니 상황은 더 열악했고,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심정으로 상당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올해 끝자락에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고 울컥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출판문화법인 드림워커'가 인세기부 프로젝트로 책을 출간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드림워커'는 2017년도 8월에 설립된 출판법인으로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사회적 가치 창출'에 그 모토를 두었습니다. 법인 약관도 거기에 방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이라는 분야의 장점을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자들이 가져가는 인세는, 그 도서가 폐간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그 가치로 좀 더 훌륭한 일을 할 수는 없을까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을까요?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질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인세로 세상을 의미 있게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갈' 드림팀이 만들

어졌습니다.

말씀 드렸듯,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서로 다른 상황하에 있는 저자들의 원고를 취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신 저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자신만의 스토리를 세상을 위해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 겨울이 가고 나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봄은 모두에게 ‘설레임의 계절’은 아닙니다. 오히려 겨우내 얼었던 딱딱한 땅을 뚫고 나와야 하는 도전과 아픔을 씨앗들에게 요구하는 계절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름의 무성한 성장도, 그리고 가을의 아름다운 결실도, 겨울의 포근한 안락함도 가능합니다.

이 책이 바로 그러한 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누군가에게는 이 책이 봄의 희망을 생각할 수 있는 책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을 집어 든 당신은, 누군가에게 진정 ‘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가치가 기부의 형태로 누군가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능성이 빛을 한껏 머금은 씨앗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전달하는 ‘봄’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 입구에서 우리는 당신을 통해 ‘봄’을 봅니다.

2022년 11월

편집자 한아타



들어가며 8

홍 현

## 이타성의 고리

마다가스카르

Seeing at the other side

계속 실패하다

변화

탈출구를 찾아 헤매다

생의 의미가 완성될 때

피비우스의 띠

배 건

## ‘나’로서의 삶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다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축구는 군사작전이다(?)

재취업을 위한 여정(旅程)

## 윤영애 나비장의 60 이야기

---

나는 누구일까?

돌이켜보면, 지난 짧은 날은 오직 열정뿐이었다.

경자년 봄, 골병 든 계절

卍-사실은, 제법 위로가 되네요

세월 햇살

## 오미정 글쓰는 공간콘텐츠기획자

---

서두 - 친구의 임종을 지켜보며 든 생각

라운드1, 호되게 배운 글쓰기 ABC

라운드2, 콘텐츠의 매력을 맛보다

라운드3, 사람과 사람을 잇다

라운드4, 온라인 오프라인 넘나들며 사람과 공간을 잇고 싶다

에필로그



천혜영

---

## 어느 노처녀의 일상

---

나는 48살 노처녀다.

난 결코 독거노인으로 남고 싶지는 않다구

재 저러다 처녀귀신 되겠어요

나의 늦은 연애는 현재 진행 중

차수경

---

## 나 이래봐도 괜찮은 경찰이라고요

---

지금으로부터 21년전!

사랑하는 초딩 딸

경찰같지 않은 경찰인 나

한지민 안닮았고, 차수경처럼 생겼어요

대한민국의 당당한 경찰이 되기 위해

## 임가흔

### 인생은 쉽지 않아. 하지만 느낌있게, 옛지있게

100일 운동한 자에게 크림빵의 의미는 다르다.

지적 능력이 발달한 백호

지나버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보조 배터리 충전해 두세요

극강의 섬세함

임상실험 잘 하고 계심

쓸데없고 재밌는 거 많이 하기

## 박영희

###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로울 수 있다

늘 하고 싶은 대로

PC통신 영주넷 운영자로, 그리고 홈페이지제작 강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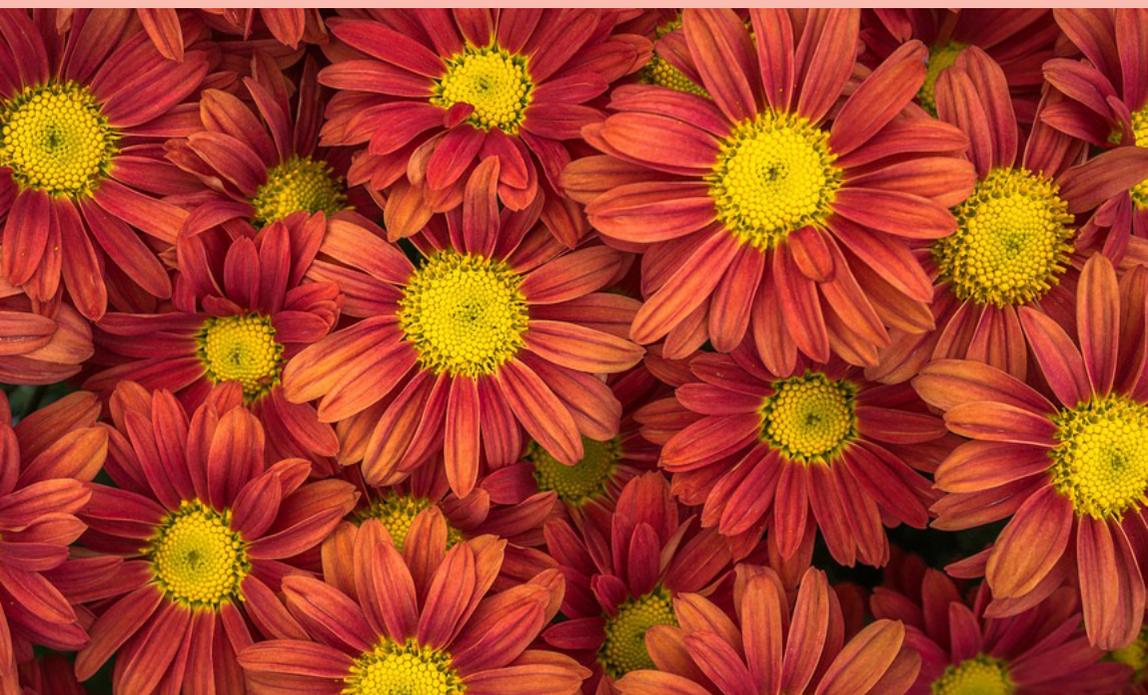
결혼, 우울증, 정주여행, 치유

무료모임 지원공간, “참사랑 가족주민센터” 운영

소백산 국립공원에서의 ‘반딧불이 서당’



"당신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이타성의 고리



홍 현



[hongmh0272@gmail.com](mailto:hongmh0272@gmail.com)

외과 레지던트  
2015년도 제10회 의대생 문예공모전 수필 부문 대상

작은 마을 한 귀퉁이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나이.  
오래전 있었던 ‘그’의 삶의 스토리들과  
현실을 살아내는 나의 이야기들이  
시공을 오가며 무언의 메시지를 그린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동시성의 세계 안에서 만들어진 ‘이타성의 고리’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 마다가스카르



아침 햇살이 거실 블라인드 틈 사이로 뻗어있다. 거실 바닥엔 아이들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었고 가족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말 아침이다. 아내가 아침 겸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빨래를 개고 오랜만에 거실 장을 닦았다. 거실장 위 평소에 만질 일이 없는 지구본 위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있다. 그 순간 TV에는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을 위한 후원 광고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여섯 살 딸아이가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아빠, 나 커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아인, 착하네. 그런데 아프리카가 어디 있는지 아니?”

나는 방금 먼지를 닦은 지구본을 돌려 아이에게 아프리카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자. 엄청 크지?”

“응! 엄청 커!”

아이 말에는 왠지모를 활기가 느껴졌다.

“아인이 크면 아빠랑 같이 아프리카 가서 불쌍한 어린이들 도와줄까?”

“좋아!”

딸아이는 대답하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벙글~ 지구본을 돌려보았다. 다시 아프리카. 그 옆에 한반도만큼이나 커다란 섬이 있었다.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대륙 옆에 이렇게 큰 섬이 있다는 것도, ‘마다가스카르’라는 이름도 모르고 있었다. 아마도 태초에 아프리카와 붙어 있었던 것처럼 마다가스카르의 모양은 아프리카 동쪽 해안선과 아귀가 잘 맞아 떨어진다.

별 생각 없이 하던 청소를 마저 이어간다. 언제나 그렇듯이 일요일 하루는 빠르게 지나간다. 햇살은 이미 노란색 빛깔을 내며 낮은 각도로 거실 깊은 곳까지 뻗어있다. 주말만 되면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 내 주변의 중력이 높아지는 걸까, 그래서 시간이 눈 깜빡할 사이에 빠르게 흘러가 버리는 걸지도 모른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며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TV를 켜다. 때를 맞추어 여행 다큐멘터리가 시작하고 있었다.

세계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는 나는 TV로 여행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제목에 <마다가스카르 4부작>이라고 쓰여있다. ‘저건 아침에 아이와 함께 본 그 마다가스카르...!’ 그곳에는 생뚝쭈베리의 「어린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가 넓은 초원 곳곳에 마치 기둥처럼 박혀있다. 드넓은 초원뿐만 아니라 전라도에서 볼 법한 광활한 곡창지대도 있다. 연 삼모작三毛作을 할 수 있다는 축복받은 땅이다. 얼마나 많은 식량이 생산될

수 있겠는가. 그곳에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살고 있었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는 열대어라서 무지개빛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관상용으로 볼 물고기들이 그곳에선 생선이 된다. 아내가 TV를 그만 보라고 타박하여 나는 잠시 놓았던 낚을 찾았다. “여보, 저기 마다가스카르야.” 이렇게 말하는 날 보며 아내는 표정으로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다. 마치 ‘어쩌라고?’라며 말하는 듯 말이다. 그러곤 다시 자기 일을 이어갔다.

### 동시성이 존재하는 세계

분명히 우리는 살면서 이와 같은 기이한 경험을 여러 차례 경험한다. 그러나 대부분 우연의 일치라는 말로 넘길 뿐이다. 스위스의 분석심리학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1875년 - 1961년)은 이처럼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 연관이 매우 높은 현상을 ‘동시성 synchronicity’이라고 명명했다. 현상을 보고 가설을 세워 수식이나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과정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부른다. 즉, 근거를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하나의 보편적 진리에 편입될 수 있는 것이다.

아쉽게도 내가 경험했고 칼 융도 경험했던, 우연으로 치부하기에 확률이 너무도 낮은, 기이한 현상인 ‘동시성’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단지 미신이나 초자연적 현상의 범주에 들어갈 뿐이다. 그러나 동시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현상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어쩌면 단지 인류에게 ‘동시성’을 증명할 수 있는 지식과 도구가 아직 없기 때문이 아닐까? 세계의 모습이 서서히 재구성되고 있다. 나는

# 드림워커가 만들어 가는 두 번째 인세 전액 기부 도서

이 책을 집어든 순간 당신의 온기가  
사회를 더 밝은 곳이 되게 합니다.



## 당신과 나의 지구별 인연은 어떤 이유일까요?

19page

여섯 살 딸아이가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아빠, 나 커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아인, 착하네. 그런데 아프리카가 어디 있는지 아니?”

나는 방금 먼지를 닦은 지구본을 돌려 아이에게 아프리카를 보여주었다.

27page

부족함을 모르고 자란 부자들의 왜곡된 삶이 만들어낸 괴물,

바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부재와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경멸이다.

57page

아마 ‘나의 아버지’도 그러셨을 것이다. 자식을 키우면서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지만,  
한편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결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74page

60년을 지탱해 온 삶의 원동력은 「호기심+지루함 타파」이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호기심은 두려움(생존 포기+ 무력감)을 가장한 얼굴이다. 실상의 나는 인내심 부족으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할까 봐 미리 겁내는 숨은 쪽보의 모습이다.

78page

꿈은 매일 밤 꾀다. 그 중에 어떤 것에 물을 주어야 할지는 온전히 시절 인연에 준한다.

‘평생’이라는 조건이 선택을 망설이게 하고 주춤대다가 종국에는 기회를 놓치고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주범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